「오카야마시장 메일메거진（122）」2019 년 10 월 21 일 호

【Ｇ２０オカヤマ 보건 장관 회의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１０月１９일、２０일 2 일간 Ｇ２０ 보건 장관 회의가 오카야마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Ｇ２０ 가맹국와 초대국 등 34 명의 대표가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감염병 대책등 구제적인 보건 의료 과제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전날인 18 일에는 오카야마 주최의 만찬을 준비하여 오카야마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만든 요리와 빗추 가구라, 피아노 연주 등으로 환영했습니다.

19 일 회의에서 저는 개최지 시장으로서 동 회의 지원 추진협의회에서 정리한 「포지티브 ・ 헬스 ・ 오카야마」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카야마의 보건의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030 년까지의 실현을 목표로하는 시와 현, 관계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협의회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시내에 있는 죠토, 소잔, 가쿠게칸 고등학교 학생 8 명이 여성에 관한 보건 의료의 과제 등에 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예행연습에서는 조금 프레셔를 느낀것 같아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만, 발표 당일엔 내용을 포함해 훌륭한 스피치로 많은 칭찬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날 장관 주최의 만찬회는 오카야마 고라쿠엔 안에 있는 무가의 저택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가쿠메이관에서 개최되어 오카야마산 음식과 쿄켄을 선보였습니다.

조용히 담소를 나누던 중 돌연히 스웨덴분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스페인분 두분이서 플라맹코 댄스를, 마지막엔 리투아니아분이 책상을 북대신으로 연주를 시작해 너무 흥겨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 일에는 오카야마시가 민간 자금과 노하우을 활용해 건강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프란치 오카야마 키타나가세(쇼핑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복합상업시설)에서 식품 슈퍼마켓이나 워킹 전문점 등을 시찰했습니다.

시찰중, 프랑스 분께 건강식에 관해 설명했을때 「일본인은 좋겠다. 프랑스는 치즈와 와인 식문화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 전체가 워킹을 장려하는 부분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다음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워킹 서밋으로 하자」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분은 일부러 사무국 스텝에게 가서 「지금까지 여러 회의에 참가했지만 이처럼 마음에 남는 회의는 처음이었다」라고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분들도 「지금까지 없었던 훌륭한 환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일동안 각국, 각지역 여러분의 회의의 성과와 함께 오카야마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의 경험을 국제대회나 컨벤션 개최에 살리는 것과 함께 레거시로 만든「포지티브・헬스・오카야마」의 실현을 향한 대처를 진행시켜 시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